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12월 8일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모성의 응당한 책임과 본분을 한 자기들을 위해 성대한 회합을 마련해주시고 온갖 특전과 특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늘같은 은정을 거둬안겨주시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위대한 아버지를 우리러 걱정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적인 환호에 손저어 달래하시며 사랑하는 자식들의 어엿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 우리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심신을 다 바쳐가는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어머니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역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은 공화국의 수천만 아들딸들의 영웅적위훈은 나라의 역군들을 키우고 주체위업의 대를 굳건히 잇는 뿌리가 되어준 강인하고 사려깊은 어머니들의 무한한 정과 사랑, 헌신의 고귀한 결실이며 조국방우에 마련된 모든 재부들에는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조선녀성들의 보석같은 애국충심과 고귀한 맘이 뜨겁게 스며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가사는 곧 국사이고 사회의 세포인 매 가정의 튼튼하고 혈기왕성해야 사회주의대



가정이 더욱 부흥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계기로 사회의 청신함과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어가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고결한 삶이 대바르게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의 크나큰 자랑과 영예

로, 우리 당과 국가의 무진한 힘으로 더욱 빛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어머니라는 가장 친근하고 신성한 부름을 소중히 새겨안고 가정과 후대들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길을 변함없이 걸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조선녀성의 정신도덕적품모를 발휘해나가는 모든 어머니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시금 축원하시면서 대회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조선소년단축하단의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한 학생소년들과도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화폭을 남기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끝없는 환회에 복받쳐 발을 동동 구르는 소년단원들에게 정겹게 손저어 주시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저마다 따라서는 학생소년들을 품어안으시며 대회장에서 보여준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모든 어머니들에게 기쁨과 새힘을 더해준것처럼 언제나 어머니들의 간절한 소원을 새겨안고 이 나라를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로 더욱 씩씩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따듯이 축복해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공산주의어머니의 값높은 칭호와 더불어 이 세상 그 어느 어머니들도 받아안을 수 없는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시는 김정은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명줄로 간직하고 충성과 애국의 가풍, 국풍을 곳곳이 이으며 부흥강국건설에 참담게 이바지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더욱더 사무쳐오는 12월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크나큰 슬픔에 산천도 초목도 몸부림치며 비분에 떨던 그날로부터 12년세월이 흘렀지만 공화국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더욱 심장의 피를 끓이며 가장 뜨겁고 강렬한 조국애와 민족애, 탁월한 사상론과 출중한 명도력,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아버지장군님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조국해방의 려명이 밝아오던 력사적시기에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비범한 생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을 세계에 빛내시길 응지를 안으시고 반세기이상의 장구한 기간 우리 조국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비상한 탐구력으로 조국과 민족의 강성변영을 위한 불멸의 사상리론적재부를 마련하시었다.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만이 조국과 민족을 향도할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립 체계화하시고 새로운 과학적근대우에서 발전풍부화시키시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관한 리론을 정립체계화하심으로써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심으로써 공화국의 존립과 발전의 근본 초석을 마련해주시었다.

수령중심론, 주체의 사상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총핵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명도는 사상적일색화가 확고히 실현된 세계최초의 정치사상강국을 탄생시키고 일심단결을 공화국의 국풍으로 확립하였다. 사랑과 민

음으로 뭉친 단결은 언제나 강하고 승리한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드림없는 신조였다. 인덕정치, 광복정치의 은혜로운 빛발로 천만자식모두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시신 위대한 아버지의 자애로운 손길이 있어 수령의 구상과 결심을 한 마음뜻으로 받들어나가는 인민이 자라나게 되었고 공화국은 가장 공고한 정치적안정속에서 자기 발전의 전성기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위적국방력을 역적으로 다지시어 인민의 영원한 존엄과 안녕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시었다. 군력이자 국력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사회주의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지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방위의 주체인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국방공업의 자립성과 현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수령과 인민이 일심단결을 이루고 혁명적 투쟁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 무적필승의 일당백혁명강군이 자라나고 공화국의 국방공업은 주체적이고 현대적인 무기와 군사장비를 마음먹은대로 만들어 내는 강위력한 혁명공업으로 발전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 불굴의 정신과 초인간적지로 조국수호의 최전방에서 반제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어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켜내시었다.

공화국을 거어아 암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세기 90년대중엽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



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초강대국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암살책동을 짓부셔버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정은 공화국을 천하무적의 군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떠올리고 사회주의수호전

의 력사적승리를 안아왔다. 하기에 온 민족은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을 지니시고 최악의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뚝고나가지

할수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떨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땅을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의

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을 불세출의 명장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한생의 좌우명, 지론으로 삼으시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말하고 가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더 헌신분투하겠다고, 자신의 생각은 언제나 인민들에게 가있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초강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었다.

그 길에서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심야강행군이라는 시대가 태어나고 족잡과 꿩기법, 야전숙육에 대한 눈물겨운 일화가 전해졌으며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승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함남의 불길에 타올랐으며 온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로 뜨겁게 정리되는 전변의 전력사가 이 땅에 펼쳐졌다.

그리고 나라의 부강변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섰고 새 세기 산업혁명이 안아온 CNC화의 동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등 자립경제의 강력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불철주야로 끊임없이 견고결인 초강도현지도 강행군로정은 지구둘레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리를 헤아린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떨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땅을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었다고, 장군님의 한생은 말 그대로 타고르는 불길이었다고,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명도자로서,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생과 시련을 다 이겨내시며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실록은 온 민족의 가슴속에,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민족자주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완성되어 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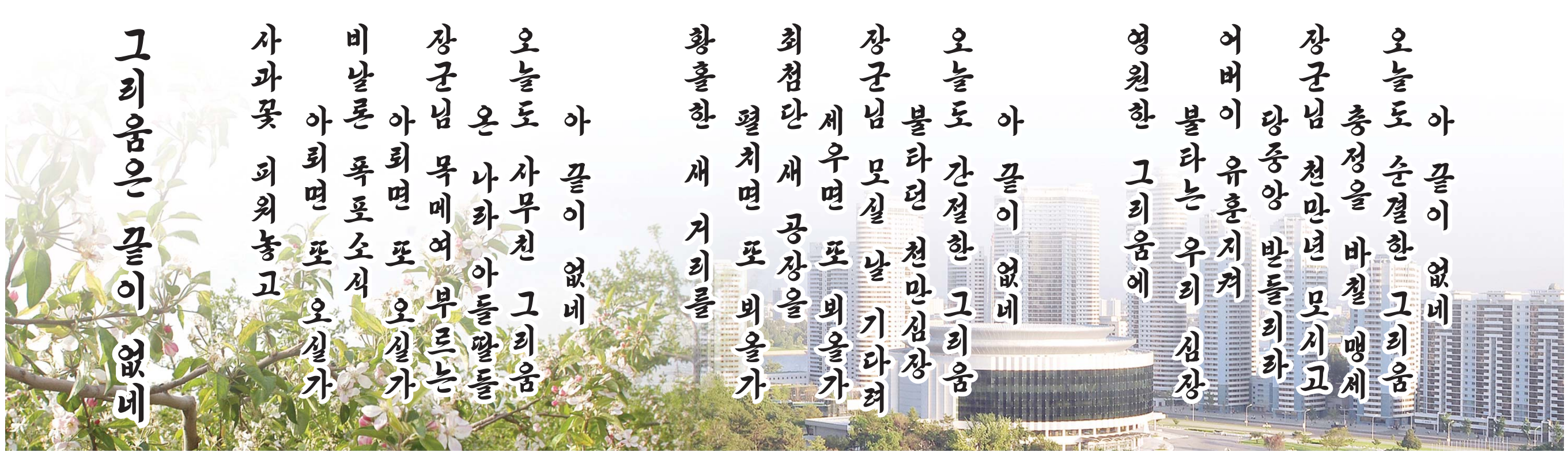
모든것을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하며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길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영원히 온 나라 강산에 빛을 뿌리게 하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감도록 이끌어 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오늘 공화국이 반만민족사에 특기할 기적과 사변들을 연이어 떠올리고 국위와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장군님은 온 민족의 마음속에 영생하시고 이 땅에는 머지않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것처럼 넘칠수있던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락원이 일떠서게 될것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은 무궁토록 통성변영하며 모든 영광을 맞이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우리 인민은 12월이 오면 누구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더욱더 사무쳐오는 그리움속에 노래 《그리움은 끝이 없네》를 심장으로 부른다.

이 노래를 부르노라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가 안겨와 지도 모르는 크나큰 격정에 휩싸이게 된다.

안았고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자신들의 삶의 좌우명으로 더욱더 굳게 간직했으며 그것을 뜨거우며 혁명적, 애국적으로 분출시켜 일러마다에서 위대한 기적과 변혁을 이룩해왔다.

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경공업공장들에 가도, 쌀로써 조국을 만드는 농장들에 가도, 평범한 집들에 가보아도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서져있고 장군님의 교시와

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 한생을 빛나게 살리라는 심장의 맹세를 다 내로 노래 《그리움은 끝이 없네》가 되어 온 강산에 울려 퍼

어제인가는 《그리움은 끝이 없네》는 새로 나온 노래들중에서 제일 잘된 노래들중의 하나이다라고,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자신의 심중을 더 놓으신

익을 때마다 우리 장군님께서 보시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었겠는가고, 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이 눈앞에 떠오른다고 거듭 외우시는것 아닌가.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라는 신념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길만을 가고가신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애국헌신의 길,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고계신다.

하기에 공화국인민은 노래 《그리움은 끝이 없네》를 영원한 인민의 아버지께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한마음뜻으로 받들어 이 땅우에 거어아 사회주의강국,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울 굳은 맹세를 안고 부르 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부르는 노래

사파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
비날론 폭포소식 아뢰면 또 오실가
...

돌아키보면 우리 인민은 지난 12년간 이 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

지금도 이 노래를 조용히 부를 때면 생각은 더욱더 깊어만 진다.

이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모서져있고 그의 불멸의 가르치심들이 새겨져 있다.

북방의 철의 기지에 가도, 인

유훈이 금문자로 빛난다.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앞에서, 장군님의 유훈 앞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절세위인이 간절해진다. 사파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 하는 일하고있는가, 그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하고있는가를 돌아키보고있고 어제

지고있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오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진다. 사파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 하는 일하고있는가, 그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하고있는가를 돌아키보고있고 어제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으시고 천만민을 이끌어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실 때마다, 후손만대의 변영을 위한 행복의 열매들이 무르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주도 못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주도 못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주도 못

본사기자 김철진

세상에 유일무이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입니다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위원 최인국

뜻깊은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너무도 많은 기적과 사변들로 너무도 크나큰 충격을 남기고가는 잊지 못할 2023년입니다.

그중에서도 온 한해 조국땅 그 어디서나 꽃피었던 새집들이경사는 한생을 건축에 몸담고 살아온 나에게 참으로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얼마전 수도의 북쪽관문에 웅건한 자태를 드러낸 서포거리를 전위거리로 명명한다는 새 소식이 또다시 접하고보니 벌써부터 새집들이의 흥겨운 광경이 눈앞에

어려와 이 마음도 절로 흥겨워집니다. 얼마나 고마웁고 행복한 세월입니까.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벽돌 한장씩은 적고 설계도에 집 하나 찍은것 없이 송구함을 금할수 없는 마음이지만 이 세상 돌도 없는 인민의 건축,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대기념비를 구가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강렬한 충동을 안고 이렇게 무던 붓을 잡아봅니다.

《새집들이사계절》로 흥하는 해

무엇 어려서는 어머니가 집이고 커서는 집이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의어처럼 불리우는 부를 우리 인민의 애착과 념원이 얼마나 깊은가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집이 이처럼 소중한가에 사람들은 집을 가리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보금자리라고도 불렀다고 인생에 설움설움해도 집없는 설움이 제일 크다고 일러온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랜 세월 바라고바라던 집에 대한 인민의 소원이 이 땅에서는 너무도 꿈만같이 성취되고있습니다. 올해에도 수도로부터 각지 농촌마을은 물론 해안지대와 산간지대, 별방지대에서 전해지는 새집들이소식들로 날에 날마다 온 나라가 흥성하였습니다.

새해 정초 초야천리 기름진 속천벌과 북변의 동해기슭 청진시의 송성농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농장들에서 울려 퍼진 새집들이경사의 농악소리, 《작공의 달》로 불리우는 2월에 연해연방 리저온 수도 평양의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과 강동은실농장건설작공의 발파소리...

강남강변 제비들의 봄노래에 실려 새싹이 움터나는 춘삼월에 벌써 행복의 《새집들이풍년》을 맞이한 사회주의농촌의 이채로운 광경과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준공식...

신록이 짙어간 이혜의 초여름은 또 얼마나 싱그러운 기쁨으로 푸르렀습니까. 봉천군, 신천군, 삼천군, 신천군, 벽동군, 성천군, 벽성군, 은률군, 태탄군, 시종군... 불리보기도 아름답게 행복의 리상촌, 눈부신 별천지가 펼쳐졌습니다.

레넌에 보기 드문 풍작으로 사회주의 전야 그 어디서나 금과만경 출렁일 때 북변의 량강도가 천지개벽되고 걸터지구가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변모되더니 11월에는 온 금골이 새집들이경사속에 커다란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끓어번졌습니다.

조국방 방방곡곡에 일떠서는 새 거리, 새 마을의 황홀한 전경도 불만하지만 국가의 배려로 평범한 근로자들이 한달 한시에 새집의 주인으로 되는 이런 광경을 자본주의땅에서야 어디 꿈엔들 생 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20대홍안의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대륙의 건축과를 졸업하고 반세기나 이 손으로 수많은 집들을 지어온 나에게 있어서 공화국의 새집들이의미는 참으로 류다름니다. 그럴수록 한하늘아래 있어도 너무도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이 가슴아프게 되 새겨집니다.

내가 살던 피피지역의 경우만 놓고봐도 80m²정도의 소박한 집을 구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가진 사람이 50년동안 수입을 한푼도 쓰지 않고 경계, 문화의 전모이고 한 나라, 한 민족의 슬기와 재능, 넉과 리상이 응축된 종합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축이 근로대중을 위한, 근로대중에게 복무하는 필수적수단으로 되지 못할 때 그것은 단지 철과 콘크리트의 구조물에 불과하며 그러한 건축물은 아무리 화려해도 시대를 구가 할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행성을 둘러보노라면 동서방을 막론하고 나라마다 자기들의 주위를 자랑하는 건축물들이 많았습니다.

황금의 탑으로 아찔하게 솟아오른 초고층건물들, 명멸하는 불빛속에 자기의 존재를 뽐내는 세계 곳곳의 형형색색의 건축물들을 바라보며 나는 그것이 건축미의 황홀한 경지라고 생각하곤 하였습니.

하나 진정한 건축의 미는 창조물의 외형에만 있는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류역의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산수 풍경을 고층건물들이 리듬감이 나게 배치된 건축공학과 결합시킨것도 이채롭지만 거대한 꽃잎들이 펼쳐진것같기도 하고 우주를 관망하는 전망대처럼 보이는 건물지붕들이며 시설물들의 품위가 살아나게 하는 간접적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모여 줄로 탄성을 터치게 합니다.

조화로운 비례, 고전미와 세련미가 결합된것으로 하여 불과 한해전에 일떠선 송화거리와는 또 다른 모습을 펼쳐보이고있는 화성거리야말로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즈커상》을 받을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불과 몇해전 리명거리의 70층초고층 살림집을 보고 공화국에서 총수가 제일

이런 희한한 모습을 한두번도 아닌 해마다, 계절마다 접하고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80층초고층아파트가 척 들어선 몇평이전위거리와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완공되어 준공의 축포성이 높이 울릴것이니 이 또한 얼마나 기쁘고 흥할 징조입니까.

《새집들이사계절!》 인류건축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없는 공화국특유의 시대어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근본도 존재리유도 다름이닌 근로인민인 공화국에서만 보고 들을수 있는 꿈같은 현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황금보다 더 값진 조국인민들의 진정한 행복상이 있고 공화국의 참모습이 있으며 누구나 시름없이 맞이하는 희망찬 래일이 비껴있습니다.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훌륭한 실제로 변모되는 이처럼 밝고 따스하고 궁극으로 공화국이 바로 인생말년에 비로소 내가 안긴 행복의 집입니다.

왜 나라에서는 희한한 새 거리의 호화 주택을 안겨주는것인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집에 들어온 년로보장자, 평생 한 일이란 고아들을 위해 운전대를 잡아온것밖에 없는 내가 새집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 이 나라의 평범한 인민이라는 그것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령의 자택자리에 들어앉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구슬다락, 경루의 호화주택에 보금자리를 편 주인들도 간부나 여대의 재부를 가진 재력가가 아닌 무케도전차운전사, 도로관리원, 상하수도사업소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이 땅 그 어디서나 만나볼수 있는 평범한 인민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공화국에 펼쳐진 사계절새집들이풍류가 나의 심금을 그리도록 세차게 울려주었던가 봅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지난 4년간 나는

흔히 건축은 해당 나라의 국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한쪽의 그림이고 거대한 조각이며 굳어진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건축물은 당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모이고 한 나라, 한 민족의 슬기와 재능, 넉과 리상이 응축된 종합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축이 근로대중을 위한, 근로대중에게 복무하는 필수적수단으로 되지 못할 때 그것은 단지 철과 콘크리트의 구조물에 불과하며 그러한 건축물은 아무리 화려해도 시대를 구가 할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행성을 둘러보노라면 동서방을 막론하고 나라마다 자기들의 주위를 자랑하는 건축물들이 많았습니다.

황금의 탑으로 아찔하게 솟아오른 초고층건물들, 명멸하는 불빛속에 자기의 존재를 뽐내는 세계 곳곳의 형형색색의 건축물들을 바라보며 나는 그것이 건축미의 황홀한 경지라고 생각하곤 하였습니.

하나 진정한 건축의 미는 창조물의 외형에만 있는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류역의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산수 풍경을 고층건물들이 리듬감이 나게 배치된 건축공학과 결합시킨것도 이채롭지만 거대한 꽃잎들이 펼쳐진것같기도 하고 우주를 관망하는 전망대처럼 보이는 건물지붕들이며 시설물들의 품위가 살아나게 하는 간접적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모여 줄로 탄성을 터치게 합니다.

조화로운 비례, 고전미와 세련미가 결합된것으로 하여 불과 한해전에 일떠선 송화거리와는 또 다른 모습을 펼쳐보이고있는 화성거리야말로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즈커상》을 받을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불과 몇해전 리명거리의 70층초고층 살림집을 보고 공화국에서 총수가 제일

높은 살림집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는데 송화거리에 아아하게 치솟은 꽃잎 모양의 80층초고층건물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놓았으니 날을 따라 높아가는 인민의 문명수준, 리상의 높이를 보여 주는 실재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전국각지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농촌마을들도 건축미학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선 희한한 리상촌, 호화촌들이라고 말할수있습니다. 얼마전 철차를 타고 리명거리에 올랐던 나는 마치 자본주의세계에서 재벌들의 별장촌을 무색케 할 농촌마을들이 그림처럼 스치는 차창가에서 좀처럼 자리를 뜰수 없었습니다.

꼭 유명화가의 걸작품에 이끌리듯, 원형하고 끝끝한 호남아에 반한듯 눈앞에 펼쳐진 희한한 문명세계에 매혹을 금치 못할수록 인터넷에서 접했던 글자들이 되새겨졌습니다. 《저런 분명 호화, 아니 초호화급》, 《경주동의 살림집들이 200만US\$에서 400만US\$이상짜리들인것으로 하여 놀라웠는데 그러한 살림집들이 농촌의 방방곡곡에 일떠서고있으니 정말 대단하다》, 《일반살림집도 그런데 저런 호화주택들까지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준다는것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공민건축국의 또 하나의 매혹은 신화적인 건설속도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온천장이라고 일컫는 스위스의 발스온천장도 3년동안 건설되었지만 그것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아름답고 황홀한 양덕은천문화휴양지는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일떠섰더니 그 속도는 잠시 신화적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습니다.

일마전에 발표된 서포거리의 새 거리 명명만 놓고보아도 결국 웅근 하나의 거리건설이 착공되지 불과 열달만에 태어난셈입니다.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화성거리, 전위거리와 같은 거대한 살림집군을 일떠세우자면 최소한 5년은 걸려야 합니다. 다시 공화국민이 창조할수 있는 사회주의문명이고 최고의 건설속도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처럼 신화적인 건설세계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펼쳐놓는 것입니까.

지금도 얼마전에 진행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님의 연설이 구절구절 이 가슴에 울려옵니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나쁜 날들의 방책책동도 전례없이 막막하였지만 우리는 10여년전과 대비할수 없는 변혁들을 무수히 이루어냈으며 앞으로 더 높은 리상과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히 투쟁하여 또 10년후에는 상상할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상을 펼쳐놓자고 합니다. ...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건축은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라는 유명한 고전적정식화를 내용으로 하는 별세상, 반복의 보금자리로 하루

빨리 전변시키시려는 그 불같은 열망으로 제노라 하는 경제대국도 감히 이루어낼수 없는 살림집문제의 완전해결이란 방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모진 극난속에서도 기적의 신화를 펼쳐실수 있는것입니다.

그것은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은령도자님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는 세기적전변이고 만년을 박차며 상승발전의 시간표대로 전진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강용한 기개와 무진한 자력을 실증해주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입니다.

덕행의 기념비는 피라미드보다 더 영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행성위에 세워진 수많은 피라미드들이 사멸되어가도 오직 공화국에 솟아오른 인민의 창조물들은 그 하나하나가 김정은령도자님의 불같은 애민신신의 세계를 길이 전하는 기념비가 되어 세월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는것을 나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수록 인생말년에야 그 품에 찾아와 안긴 만시지란이고 덧없이 흘러간 인생에 대한 아쉬움뿐입니다. 나의 할아버지(최동우)가 무엇때문에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사신을 헤치면서 공화국을 찾아왔는지, 한생을 반공일선에서 살던 아버지(최덕신)가 끌고다던 덕에 실자기를 메고 가는 심정으로 발을 들여놓았던 이 땅에 어떻게 영원한 삶의 닻을 내리었는지 일찍 깨닫지 못했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공화국이 시련속에서도 무엇으로 하여 끄떡이 없고 더욱더 강성해지든지, 주체의 사회주의리상이 과연 어떤것인지, 인민의 꿈과 웃음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조국의 품에 안겨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천하제일위인을 대를 이어 위대한 어머니로, 운명의 구세주로 높이 모시는 우리 단군민족이 받아안은 행운중의 행운입니다. 진정한 우리 가문이 3대를 두고 안긴 품, 위대한 태양이 빛나는 공화국이야말로 온 겨레가 안겨줄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이며 무궁한 행복이 담보된 민족의 위대한 조국입니다.

어느날 미술가는 《우리가 본것을 직접 눈으로 그리지 못하는것이 유감이다. 눈으로부터 손을 거쳐 붓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것이 잃어지는가》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건축과 더불어 불세출의 위인상, 세상에일의 보금자리를 노래하고저 했지만 너무도 무던 붓으로 빗살의 일각만을 그려낸 나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많은 곡절을 겪어온 불민한 이 몸을 닦하지 않고 대대같은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김정은령도자님의 은공을 언제나 잊지 않고 비록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몸이지만 절세위인들의 품에 삶의 닻을 내리고 빛나신 선친들처럼 령도자님만을 따르는 애국위업에 여력을 아낌없이 다 바쳐갈 마음입니다.



시

이역 만리에서도 친정 어버이의 사랑 속에 우리 삽니다

— 제 5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접한 재일동포여성들의 마음을 담아 —

강 정 임

많이도 웃었습니다
전국어머니대회가 열린 12월의 그날
마디마디 원수님의 그 말씀 새기며
너무도 고맙고 행복에 겨워
조국의 어머니들과 함께
총련의 우리 어머니들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역에 살면서
모진 탄압과 박해속에서도
언제 한번 보이지 않았던 눈물
그날에 우리 다 쏟았습니다
마치 친정어머니 품에 안긴 딸들인양
쏟아지는 눈물로 웃고름 적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조국엔
눈이나 비오나 변함없이
애국의 길 원군길을 걸고걸으며
나라앞에 인민앞에

자식들을 땀땀이 내세운 훌륭한 어머니
들이...

그 어머니들과 나란히
이역만리의 우리들도 불러주실 때
민족의 대, 애국의 대를 이어놓
고저

혼신을 다 바치는 어머니들이라고
정경이 말씀하실 때
아 일본땅의 우리 동포여성 모두가
눈물의 동을 터치고 또 터쳤습니다

람홍색국기에 젖은 얼굴 묻었습니다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옳다고
믿고

변함없이 열렬히 지지하여주었기에
국력강화의 길 즐거차게 갈수 있었
다고
어머니들을 높이 내세워주실 때

걸어온 애국의 길 너무도 자랑스러워서
그것은 없으면 숨줄이 끊기는
생명의 젓줄기였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수님을 전복하는
정찰위성이며 초강력주체병기들...
그 비상한 힘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꿈과 소원
지켜주고 꽃피우는
사랑중의 가장 강렬한 사랑이었으니

정녕 잊을수 없습니다
온 한해 조국을 빛내여온 기적적사변
들에
넘고헤쳐온 시련에 찬 그 나날들에
얼마나 귀중했는지 지금이었던만
이해에도 어김없이 보내주신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

그 많고많은 귀한 돈에 깃든 어버이
사랑을

그 햇빛 그 자양이 있어
조선학교 교실들에선
동포자녀들의 우리 말과 글 노래
소리
더 높이 울려 퍼지고
꽃같은 우리 딸들이 펼쳐입은
조선치마저고리의 흰 고름은
민족의 존엄안고 더 땀땀이 휘날렸
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차디찬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인정도 마르고 모성애마저 식어가
건만
원수님의 식솔들 우리 어머니들 마음에
귀여운 우리 아이들 얼굴에
언제 한번 불행의 그늘 비껴간
습니까

그래서 더욱 걱정에 겨워
소리쳐 불렀습니다
원수님 자애로운 영상 우러러
어려우면 어려워
행복하면 행복해서
어머니 품 파고드는 아이들처럼
저도 모르게 어머니!— 하고

아 자애로운 김정은원수님은
세상끝에 있다 해도
운명의 숨결 이어주고 지켜주시는
하늘같은 어머니

이역땅 모든 어머니들의 소원을 다
꽃피우시는

따뜻한 친정집의 위대한 어버이!
그 위대한신 어버이앞에
정말로 땀땀한 딸이 되됩니다
조국의 믿음직한 며느리가 되고
투쟁의 힘 보내주는 안해가 되고
애국의 대 깃곳이 이어놓는
참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이시고
우리 운명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세상 오직 한분
위대한신 어버이를 모신
우리는 제일 행복한 어머니들입
니다



이역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맹세의 메아리

위대한 김정일장군에 대한 사 무치는 그리움으로 12월의 날과 날이 흐르고있다.
오늘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온 민족을 자애로운 한 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 이해에도 우리 재일 동포들은 조국의 힘찬 전진에 발 걸음을 맞추며 애국애족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분회강화를 위한 4대 과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힘찬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모범분회의 영예를 쟁취하였습니다.》
《제일청소년학생들은 조국에서 보내준 사랑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으로 우리 말과 글을 배우며 조선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을 빛 내었습니다.》
...
아티는 사연은 서로 달라도 찬바람부는 이역땅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뜻대로 애국애족의 한결같은 깃곳이 걸어온 재일동 포들의 자랑과 긍지는 끝이 없 고 그럴수록 더욱더 그리움고 뵈고만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다.
지금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 들은 크나큰 감동과 격정속에 총 련결성 40돐을 맞이하면 그때를 잊지 못하고있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총련의 조직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 지 못하고 총련결성 40돐을 맞이 하게 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 포들의 심정은 참으로 애절하였 다.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강령적서한 《재일조선

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 전시키는데 대하여》를 받아안게 되 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한을 받아 안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세월이 갈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 욱 그리워하며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갈 애국의 신념을 굳게 다 지고있는 자기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 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뜨겁게 절 감하였다.
어찌 이뿐이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깊은 경 축행사들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 을 때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 포들을 조국으로 불러주시어 당 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 국의 참모습과 불패의 위력을 직 접 보고 느끼며 애국의 역신 신 념과 의지를 굳게 간직하도록 해 주시었고 총련은 어디까지나 애국 애족의 구호 밑에 각계각층의 광범 한 동포군중을 망라한 대중적해 의교포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그의 활동은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뜻깊은 가르침도 주시며 재일조선인운 동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길 도 환히 밝혀주시었다.
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 과 재일동포들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었는가를 전해주는 하나 의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총련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지금 조국에도 돈이 절실히 필요 하지만 금강산과 금강과 조선대학 교, 원산 《금강》원동기공장에 돈

을 보내주겠다고, 우리는 어려워 도 총련을 지원하려 한다고 교시 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지나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며 한신대지진때에도 조 국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제일 어렵고 돈도 턱박하지 못 했지만 재일동포들에게 위문금을 보내주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 리의 응당한 도리라고, 그래서 잘살아도 못살아도 조국은 조 국이라고 하는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에 총련일군들은 솟 굴사들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 을 때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 포들을 조국으로 불러주시어 당 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 국의 참모습과 불패의 위력을 직 접 보고 느끼며 애국의 역신 신 념과 의지를 굳게 간직하도록 해 주시었고 총련은 어디까지나 애국 애족의 구호 밑에 각계각층의 광범 한 동포군중을 망라한 대중적해 의교포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그의 활동은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뜻깊은 가르침도 주시며 재일조선인운 동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길 도 환히 밝혀주시었다.
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 과 재일동포들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었는가를 전해주는 하나 의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총련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지금 조국에도 돈이 절실히 필요 하지만 금강산과 금강과 조선대학 교, 원산 《금강》원동기공장에 돈

을 보내주겠다고, 우리는 어려워 도 총련을 지원하려 한다고 교시 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지나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며 한신대지진때에도 조 국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제일 어렵고 돈도 턱박하지 못 했지만 재일동포들에게 위문금을 보내주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 리의 응당한 도리라고, 그래서 잘살아도 못살아도 조국은 조 국이라고 하는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에 총련일군들은 솟 굴사들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 을 때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 포들을 조국으로 불러주시어 당 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 국의 참모습과 불패의 위력을 직 접 보고 느끼며 애국의 역신 신 념과 의지를 굳게 간직하도록 해 주시었고 총련은 어디까지나 애국 애족의 구호 밑에 각계각층의 광범 한 동포군중을 망라한 대중적해 의교포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그의 활동은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뜻깊은 가르침도 주시며 재일조선인운 동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길 도 환히 밝혀주시었다.
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 과 재일동포들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었는가를 전해주는 하나 의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총련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지금 조국에도 돈이 절실히 필요 하지만 금강산과 금강과 조선대학 교, 원산 《금강》원동기공장에 돈

얼마인가.
몸은 비록 바다 건너 이역땅에 살아도 재일동포들은 장군님과 언 제나 한과줄을 잇고 사는 한식솔 이었다.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과 맺 은 정을 피울처럼 간직하고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기에 친어버이를 그리는 자식들만항 항상 그이를 그리며 마음속진정을 아뢰이는것이다.
12월은 그리움만이 아닌 맹세 의 12월이기도 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재일동포들과 맺어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 는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으로 뜨겁게 품어안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친어버이정과 세심한 보살핌속에 변함없이 흐 르고있다.
지금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 들의 가슴마디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 르는 길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어있으며 조국의 앞 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신 념이 굳게 자리잡고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만년초석을 다 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길, 애 국애족의 한결을 역세게 가고가 리라!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다 지는 맹세는 영원한 메아리가 되 어 12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여운을 남긴 경험교환회의
본보기단위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재일 본조선민주녀성동맹 지부위원장회의가 열 마친 간도, 도가이드-강기, 시고구-규 슈, 흑가이도지방단위로 진행되었다. 따라 앞서,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입 게 벌려 모든 지부를 애국애족의 믿음직 한 성들로 다지기 위한데 이번 회의의 목 적이 있었다.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각자의 귀중한 경험들이 교환되었다.
녀성동맹 도교도 아다찌지부 위원장은 지부상임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산하 12개 분회를 활성화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에 대 해, 가나가와현 가와사끼지부 위원장은 학생전어린이찾기와 학생인업사업 등 민족교 육사업에 주력하여야 이날에 대해, 사이다 마현 남부지부 위원장은 민족성이 넘치는 동포사회를 꾸러놓는 자량에 대해 토론하 였다. 미야기현 센다이지부와 오사카부 이

경험교환회의
경험교환회의가 남긴 여운은 컸다. 《지부상임위원회의 역할제고가 가지는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뚜렷 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완강 하게 사업을 밀고나간 단위들의 경험에서 많은것을 배웠다.》, 《모범적인 지부들을 본받아 우리 지부에서도 꼭 혁신을 일으 키겠다.》...
회의를 마치고 지부위원장들은 다음해에 진행되게 될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4》(새 전성기 4차대회)에 더 훌륭한 사업성 과를 안고 참가할것을 약속하였다.
본사기자

성황을 이룬 학교창립기념행사
얼마전 총련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 구내는 수많은 사람들로 성황을 이루었 다. 올해초부터 진행하여온 학교창립 70돐 기념행사의 마지막일정이 펼쳐진것 이다.
학교가 있어야 동포들이 모이고 학교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땀땀한 조선사람으 로 자라날수 있다. 비록 조건은 어렵지만 자녀들에게 참된 애국정신을 심어주기 위 한 민족교육사업에 발벗고나서자!
이런 의미안고 총련과 녀성동맹, 조청, 청상회, 상공회 그리고 학교 아버지회, 어 머니회 성원들이 행사의 성과적보장에 이 바지하였다.
주최자들도 놀랄만큼 많은 동포들이 행

사장으로 찾아왔다. 학교주변에서 사는 사 람들은 재일조선인들의 단결력이 정말 부 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날의 행사에서 이채를 띤것은 학생들 과 동포성악가들의 특별공연이었다.
제5차 재일조선학생중앙예술경연대회에 서 금상을 받은 고급부 1학년 학생의 독 무, 중급부학생들의 중창, 전교학생들이 출연하는 민족악기합주는 행사장을 환희 로 뒹어번지게 하였다.
애국의 화원인 우리 학교를 세세년년 빛 내어가자!
이런 구호를 힘차게 웨치며 동포들은 뜻 깊은 기념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본사기자

지부강화와 민족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모든 지부를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들로 다지며 자녀 들을 참된 애국정신의 소유자들로 키우기 위한 민족교육사업에 적극 펼쳐나가고있다.

이역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맹세의 메아리

위대한 김정일장군에 대한 사 무치는 그리움으로 12월의 날과 날이 흐르고있다.
오늘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온 민족을 자애로운 한 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 이해에도 우리 재일 동포들은 조국의 힘찬 전진에 발 걸음을 맞추며 애국애족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분회강화를 위한 4대 과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힘찬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모범분회의 영예를 쟁취하였습니다.》
《제일청소년학생들은 조국에서 보내준 사랑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으로 우리 말과 글을 배우며 조선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을 빛 내었습니다.》
...
아티는 사연은 서로 달라도 찬바람부는 이역땅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뜻대로 애국애족의 한결같은 깃곳이 걸어온 재일동 포들의 자랑과 긍지는 끝이 없 고 그럴수록 더욱더 그리움고 뵈고만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다.
지금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 들은 크나큰 감동과 격정속에 총 련결성 40돐을 맞이하면 그때를 잊지 못하고있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총련의 조직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 지 못하고 총련결성 40돐을 맞이 하게 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 포들의 심정은 참으로 애절하였 다.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강령적서한 《재일조선

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 전시키는데 대하여》를 받아안게 되 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한을 받아 안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세월이 갈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 욱 그리워하며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갈 애국의 신념을 굳게 다 지고있는 자기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 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뜨겁게 절 감하였다.
어찌 이뿐이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깊은 경 축행사들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 을 때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 포들을 조국으로 불러주시어 당 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 국의 참모습과 불패의 위력을 직 접 보고 느끼며 애국의 역신 신 념과 의지를 굳게 간직하도록 해 주시었고 총련은 어디까지나 애국 애족의 구호 밑에 각계각층의 광범 한 동포군중을 망라한 대중적해 의교포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그의 활동은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뜻깊은 가르침도 주시며 재일조선인운 동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길 도 환히 밝혀주시었다.
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 과 재일동포들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었는가를 전해주는 하나 의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총련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지금 조국에도 돈이 절실히 필요 하지만 금강산과 금강과 조선대학 교, 원산 《금강》원동기공장에 돈

을 보내주겠다고, 우리는 어려워 도 총련을 지원하려 한다고 교시 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지나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며 한신대지진때에도 조 국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제일 어렵고 돈도 턱박하지 못 했지만 재일동포들에게 위문금을 보내주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 리의 응당한 도리라고, 그래서 잘살아도 못살아도 조국은 조 국이라고 하는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에 총련일군들은 솟 굴사들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 을 때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 포들을 조국으로 불러주시어 당 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 국의 참모습과 불패의 위력을 직 접 보고 느끼며 애국의 역신 신 념과 의지를 굳게 간직하도록 해 주시었고 총련은 어디까지나 애국 애족의 구호 밑에 각계각층의 광범 한 동포군중을 망라한 대중적해 의교포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그의 활동은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뜻깊은 가르침도 주시며 재일조선인운 동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길 도 환히 밝혀주시었다.
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 과 재일동포들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었는가를 전해주는 하나 의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총련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지금 조국에도 돈이 절실히 필요 하지만 금강산과 금강과 조선대학 교, 원산 《금강》원동기공장에 돈

얼마인가.
몸은 비록 바다 건너 이역땅에 살아도 재일동포들은 장군님과 언 제나 한과줄을 잇고 사는 한식솔 이었다.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과 맺 은 정을 피울처럼 간직하고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기에 친어버이를 그리는 자식들만항 항상 그이를 그리며 마음속진정을 아뢰이는것이다.
12월은 그리움만이 아닌 맹세 의 12월이기도 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재일동포들과 맺어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 는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으로 뜨겁게 품어안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친어버이정과 세심한 보살핌속에 변함없이 흐 르고있다.
지금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 들의 가슴마디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 르는 길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어있으며 조국의 앞 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신 념이 굳게 자리잡고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만년초석을 다 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길, 애 국애족의 한결을 역세게 가고가 리라!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다 지는 맹세는 영원한 메아리가 되 어 12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윤석열역적패당이 저지른 죄악의 1년을 결산한다

— 조 국 통 일 연 구 원 고 발 장 —

한해가 저물어가고있다. 올해 다사다난했던 피뢰지역은 흘러가는 세월에 역행한 퇴보의 한해로 얼룩졌다. 그것은 단순히 1, 2년의 후퇴가 아니라 반세기이상의 역사를 되돌려놓은 전대미문의 대퇴보였다. 21세기의 20년대에 들어와 피뢰지역에서 서방세계를 휩쓸던 1950년대의 《맥카시즘》이 어지럽게 란무하고 세계를 경악시킨 과거 군사파쇼독재의 유훈이 살아나 판을 치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피뢰지역에서 벌어지는 광기어린 진

쟁소동으로 조선반도가 핵전쟁발발의 진앙지에 들어서고 피뢰내부가 후진국형의 경제적침체와 민생파탄의 소용돌이속에 빠져든것도 예상보다 빨리 닥쳐왔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무지와 무능, 반역정적에 빚어진 참담한 결과이다. 조국통일연구원은 2023년을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여 피뢰지역을 검찰파쇼독재의 란무장, 북침전쟁도발의 소굴, 민생파탄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은 윤석열역적패당의 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물어보다 더한 검찰장관들의 《법률》이 사냥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사회진반에서 현대판 《마녀사냥》, 《종교재판》, 《간첩잡이》가 횡행했다. 《장원간첩단사건》, 《제주간첩단사건》 등 검찰파쇼당국이 조작한 간첩사건만도 10여건이나 되고 저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백주에 《반국가세력》, 부정부패세력 등으로 몰려 공직에서 강제로 쫓겨난 인물도 무려 240여명이나 된다. 지어 피뢰역당의 원로라고 해도 역도에게 비판적인가 차없이 제거당하였다.

이제는 야당정권이 법정에 끌려나가고 생존권과 권리보장을 요구한 노동자, 농민, 교직원들이 《빨갱이》, 《간첩》으로 처형되고 《정부》를 비판하였다고 하여 언론인이 백주에 방송사에서 축출당하는것쯤은 예상사로 되었다. 오죽했으면 군부장관들이 위두는 총칼보다 검찰장관들이 조여드는 《법치》의 울가미가 더 잔인하다는 개탄이 터져나오고있겠는가.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역적도는 이전 집권자에서 세운으로 감옥에 처넣었던 리명박, 박근혜당을 《특별사면》해놓은 일이며 찾아다니며 《선배님》, 《누나》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파쇼독재의 수법을 전수받는 놀음도 벌였다. 천하의 만고역적 리승만역도를 《국부》로, 친일반역자 백선열역적을 《영웅》으로 추앙하여 그 무슨 기념관과 동상을 세우는 놀음이 빠졌이 감행되는데 반면 과거 일제와 맞서싸운 반일의병대장 홍범도의 《썩은공산당일당》경력이 문제가 되어 그의 반신상과 무덤을 뜯어내어 무관참시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논과 입, 귀가 있지만 볼수도, 말할수도, 들을수도 없는 암흑시대》, 《한숨소리조차 반공법정의가 되는 숨막히는 지옥》, 《생존이 어려워 솟구치는 서러움마저 용공으로 되는 세월》, 《반공법, 보안법의 눈과 귀가 다사라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24시간과 365일, 죽음의 사(死)계절》... 이것은 과거 군부파쇼독재시기가 아니라 오늘 윤석열역적도의 검찰파쇼통치가 빚어낸 암울한 현실을 저주하는 민심의 피라는 절규이다.

검찰파쇼통치가 빚어낸 암흑의 1년

새해 첫날 윤석열역적도는 《신년사》라는데서 《자유》와 《연대》, 《가치》를 운운하며 《자유》가 살아숨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세상이 올것처럼 광고해왔다.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피뢰지역은 《자유》가 억압당하고 《연대》가 날아났으며 《가치》가 무시되고 《기회》가 말살된 그야말로 암흑천지로 변해버렸다. 이 비극적현실은 과거 군부장관들의 망령이 검찰파쇼독재로 둔갑하여 민중, 민생을 괴상한 결과이다.

그러나 윤석열역적패당은 경찰에 넘어갔던 수사권을 다시 검찰로 넘기고 《교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거꾸로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만들어놓았다. 피뢰검찰장관들은 실재와 기준이 모호한 《법》을 자대로 야당과 정치적 반대파들, 비판세력들에 대해 《법위반》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 평장청구, 압수수색, 구속수사를 해대며 윤석열역적도에 얹어서는 세력들을 모조리 짓밟아갔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역적도는 이전 집권자에서 세운으로 감옥에 처넣었던 리명박, 박근혜당을 《특별사면》해놓은 일이며 찾아다니며 《선배님》, 《누나》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파쇼독재의 수법을 전수받는 놀음도 벌였다. 천하의 만고역적 리승만역도를 《국부》로, 친일반역자 백선열역적을 《영웅》으로 추앙하여 그 무슨 기념관과 동상을 세우는 놀음이 빠졌이 감행되는데 반면 과거 일제와 맞서싸운 반일의병대장 홍범도의 《썩은공산당일당》경력이 문제가 되어 그의 반신상과 무덤을 뜯어내어 무관참시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역적도는 이전 집권자에서 세운으로 감옥에 처넣었던 리명박, 박근혜당을 《특별사면》해놓은 일이며 찾아다니며 《선배님》, 《누나》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파쇼독재의 수법을 전수받는 놀음도 벌였다. 천하의 만고역적 리승만역도를 《국부》로, 친일반역자 백선열역적을 《영웅》으로 추앙하여 그 무슨 기념관과 동상을 세우는 놀음이 빠졌이 감행되는데 반면 과거 일제와 맞서싸운 반일의병대장 홍범도의 《썩은공산당일당》경력이 문제가 되어 그의 반신상과 무덤을 뜯어내어 무관참시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역적도는 이전 집권자에서 세운으로 감옥에 처넣었던 리명박, 박근혜당을 《특별사면》해놓은 일이며 찾아다니며 《선배님》, 《누나》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파쇼독재의 수법을 전수받는 놀음도 벌였다. 천하의 만고역적 리승만역도를 《국부》로, 친일반역자 백선열역적을 《영웅》으로 추앙하여 그 무슨 기념관과 동상을 세우는 놀음이 빠졌이 감행되는데 반면 과거 일제와 맞서싸운 반일의병대장 홍범도의 《썩은공산당일당》경력이 문제가 되어 그의 반신상과 무덤을 뜯어내어 무관참시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역적도는 이전 집권자에서 세운으로 감옥에 처넣었던 리명박, 박근혜당을 《특별사면》해놓은 일이며 찾아다니며 《선배님》, 《누나》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파쇼독재의 수법을 전수받는 놀음도 벌였다. 천하의 만고역적 리승만역도를 《국부》로, 친일반역자 백선열역적을 《영웅》으로 추앙하여 그 무슨 기념관과 동상을 세우는 놀음이 빠졌이 감행되는데 반면 과거 일제와 맞서싸운 반일의병대장 홍범도의 《썩은공산당일당》경력이 문제가 되어 그의 반신상과 무덤을 뜯어내어 무관참시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올해 윤석열역적도는 집권하자마자 검찰출신장관들을 권력의 요직에 끌어들이고 검찰독재체제를 더욱 보강하고 사회진반을 검찰화하는데 열을 올렸다. 역도는 검찰장관들을 비단 《정권》의 핵심요직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의 요직들을 무차별적으로 타고앉게 하여 검찰독재체제를 보다 완비하였다. 피뢰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를 비롯한 30여개의 행정기관들, 피뢰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권력기관들의 주요직책들이 무려 180여명의 검찰출신장관들이 들어앉았다.

올해 윤석열역적도는 집권하자마자 검찰출신장관들을 권력의 요직에 끌어들이고 검찰독재체제를 더욱 보강하고 사회진반을 검찰화하는데 열을 올렸다. 역도는 검찰장관들을 비단 《정권》의 핵심요직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의 요직들을 무차별적으로 타고앉게 하여 검찰독재체제를 보다 완비하였다. 피뢰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를 비롯한 30여개의 행정기관들, 피뢰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권력기관들의 주요직책들이 무려 180여명의 검찰출신장관들이 들어앉았다.

올해 윤석열역적도는 집권하자마자 검찰출신장관들을 권력의 요직에 끌어들이고 검찰독재체제를 더욱 보강하고 사회진반을 검찰화하는데 열을 올렸다. 역도는 검찰장관들을 비단 《정권》의 핵심요직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의 요직들을 무차별적으로 타고앉게 하여 검찰독재체제를 보다 완비하였다. 피뢰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를 비롯한 30여개의 행정기관들, 피뢰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권력기관들의 주요직책들이 무려 180여명의 검찰출신장관들이 들어앉았다.

올해 윤석열역적도는 집권하자마자 검찰출신장관들을 권력의 요직에 끌어들이고 검찰독재체제를 더욱 보강하고 사회진반을 검찰화하는데 열을 올렸다. 역도는 검찰장관들을 비단 《정권》의 핵심요직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의 요직들을 무차별적으로 타고앉게 하여 검찰독재체제를 보다 완비하였다. 피뢰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를 비롯한 30여개의 행정기관들, 피뢰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권력기관들의 주요직책들이 무려 180여명의 검찰출신장관들이 들어앉았다.

올해 윤석열역적도는 집권하자마자 검찰출신장관들을 권력의 요직에 끌어들이고 검찰독재체제를 더욱 보강하고 사회진반을 검찰화하는데 열을 올렸다. 역도는 검찰장관들을 비단 《정권》의 핵심요직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의 요직들을 무차별적으로 타고앉게 하여 검찰독재체제를 보다 완비하였다. 피뢰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를 비롯한 30여개의 행정기관들, 피뢰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권력기관들의 주요직책들이 무려 180여명의 검찰출신장관들이 들어앉았다.

올해 윤석열역적도는 집권하자마자 검찰출신장관들을 권력의 요직에 끌어들이고 검찰독재체제를 더욱 보강하고 사회진반을 검찰화하는데 열을 올렸다. 역도는 검찰장관들을 비단 《정권》의 핵심요직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의 요직들을 무차별적으로 타고앉게 하여 검찰독재체제를 보다 완비하였다. 피뢰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를 비롯한 30여개의 행정기관들, 피뢰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권력기관들의 주요직책들이 무려 180여명의 검찰출신장관들이 들어앉았다.

피뢰공공기관들인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에코노믹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업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00여개 감사, 리사직들에도 검찰출신들이 타고앉게 하였다. 《삼성전자》, 《LG》, 《NH투자증권》, 《신세계건설》, 《한화솔루션》, 《효성중공업》 등 무려 50여개 민간 기업들에도 검찰출신들이 사장, 감사, 리사, 상무라는 노란자위들을 차지하여 좌우지하게 만들었다. 검찰파쇼독재의 촉수는 피뢰역당은 물론 피뢰국회에도 뻗어났다.

피뢰공공기관들인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에코노믹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업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00여개 감사, 리사직들에도 검찰출신들이 타고앉게 하였다. 《삼성전자》, 《LG》, 《NH투자증권》, 《신세계건설》, 《한화솔루션》, 《효성중공업》 등 무려 50여개 민간 기업들에도 검찰출신들이 사장, 감사, 리사, 상무라는 노란자위들을 차지하여 좌우지하게 만들었다. 검찰파쇼독재의 촉수는 피뢰역당은 물론 피뢰국회에도 뻗어났다.

피뢰공공기관들인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에코노믹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업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00여개 감사, 리사직들에도 검찰출신들이 타고앉게 하였다. 《삼성전자》, 《LG》, 《NH투자증권》, 《신세계건설》, 《한화솔루션》, 《효성중공업》 등 무려 50여개 민간 기업들에도 검찰출신들이 사장, 감사, 리사, 상무라는 노란자위들을 차지하여 좌우지하게 만들었다. 검찰파쇼독재의 촉수는 피뢰역당은 물론 피뢰국회에도 뻗어났다.

피뢰공공기관들인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에코노믹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업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00여개 감사, 리사직들에도 검찰출신들이 타고앉게 하였다. 《삼성전자》, 《LG》, 《NH투자증권》, 《신세계건설》, 《한화솔루션》, 《효성중공업》 등 무려 50여개 민간 기업들에도 검찰출신들이 사장, 감사, 리사, 상무라는 노란자위들을 차지하여 좌우지하게 만들었다. 검찰파쇼독재의 촉수는 피뢰역당은 물론 피뢰국회에도 뻗어났다.

피뢰공공기관들인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에코노믹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업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00여개 감사, 리사직들에도 검찰출신들이 타고앉게 하였다. 《삼성전자》, 《LG》, 《NH투자증권》, 《신세계건설》, 《한화솔루션》, 《효성중공업》 등 무려 50여개 민간 기업들에도 검찰출신들이 사장, 감사, 리사, 상무라는 노란자위들을 차지하여 좌우지하게 만들었다. 검찰파쇼독재의 촉수는 피뢰역당은 물론 피뢰국회에도 뻗어났다.

피뢰공공기관들인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에코노믹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업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00여개 감사, 리사직들에도 검찰출신들이 타고앉게 하였다. 《삼성전자》, 《LG》, 《NH투자증권》, 《신세계건설》, 《한화솔루션》, 《효성중공업》 등 무려 50여개 민간 기업들에도 검찰출신들이 사장, 감사, 리사, 상무라는 노란자위들을 차지하여 좌우지하게 만들었다. 검찰파쇼독재의 촉수는 피뢰역당은 물론 피뢰국회에도 뻗어났다.

조선반도에 핵전쟁위기를 몰아온 대결의 1년

올해 윤석열역적패당이 저지른 죄악 중 가장 극악한 죄악은 외세와 결탁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일축축들의 핵전쟁위기로 몰아넣은것이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무력강화조치에 허당하기 그지없는 가짜가치의 《위협》설, 《도발》설들을 잡다하게 떠들어대며 외세와 결탁하여 벌려놓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침핵전쟁종개와 전쟁폭언은 럽게점을 넘어선지 오래다.

올해 윤석열역적패당이 저지른 죄악 중 가장 극악한 죄악은 외세와 결탁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일축축들의 핵전쟁위기로 몰아넣은것이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무력강화조치에 허당하기 그지없는 가짜가치의 《위협》설, 《도발》설들을 잡다하게 떠들어대며 외세와 결탁하여 벌려놓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침핵전쟁종개와 전쟁폭언은 럽게점을 넘어선지 오래다.

올해 윤석열역적패당이 저지른 죄악 중 가장 극악한 죄악은 외세와 결탁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일축축들의 핵전쟁위기로 몰아넣은것이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무력강화조치에 허당하기 그지없는 가짜가치의 《위협》설, 《도발》설들을 잡다하게 떠들어대며 외세와 결탁하여 벌려놓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침핵전쟁종개와 전쟁폭언은 럽게점을 넘어선지 오래다.

올해 윤석열역적패당이 저지른 죄악 중 가장 극악한 죄악은 외세와 결탁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일축축들의 핵전쟁위기로 몰아넣은것이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무력강화조치에 허당하기 그지없는 가짜가치의 《위협》설, 《도발》설들을 잡다하게 떠들어대며 외세와 결탁하여 벌려놓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침핵전쟁종개와 전쟁폭언은 럽게점을 넘어선지 오래다.

올해 윤석열역적패당이 저지른 죄악 중 가장 극악한 죄악은 외세와 결탁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일축축들의 핵전쟁위기로 몰아넣은것이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무력강화조치에 허당하기 그지없는 가짜가치의 《위협》설, 《도발》설들을 잡다하게 떠들어대며 외세와 결탁하여 벌려놓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침핵전쟁종개와 전쟁폭언은 럽게점을 넘어선지 오래다.

올해 윤석열역적패당이 저지른 죄악 중 가장 극악한 죄악은 외세와 결탁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일축축들의 핵전쟁위기로 몰아넣은것이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무력강화조치에 허당하기 그지없는 가짜가치의 《위협》설, 《도발》설들을 잡다하게 떠들어대며 외세와 결탁하여 벌려놓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침핵전쟁종개와 전쟁폭언은 럽게점을 넘어선지 오래다.

윤석열역적도의 이러한 검찰파쇼독재강화놀음은 《법치》의 간판위에 강행되는 무지막친한 란암행위와 병행되어 사회진반에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전 피뢰정권에서는 《법》이라는 칼을 휘둘러 《대통령》도 하루이침에 감옥귀신으로 만드는 검찰의 무제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으며 검찰을 통제하는 《교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것도 내뒀었다.

윤석열역적도의 이러한 검찰파쇼독재강화놀음은 《법치》의 간판위에 강행되는 무지막친한 란암행위와 병행되어 사회진반에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전 피뢰정권에서는 《법》이라는 칼을 휘둘러 《대통령》도 하루이침에 감옥귀신으로 만드는 검찰의 무제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으며 검찰을 통제하는 《교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것도 내뒀었다.

윤석열역적도의 이러한 검찰파쇼독재강화놀음은 《법치》의 간판위에 강행되는 무지막친한 란암행위와 병행되어 사회진반에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전 피뢰정권에서는 《법》이라는 칼을 휘둘러 《대통령》도 하루이침에 감옥귀신으로 만드는 검찰의 무제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으며 검찰을 통제하는 《교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것도 내뒀었다.

윤석열역적도의 이러한 검찰파쇼독재강화놀음은 《법치》의 간판위에 강행되는 무지막친한 란암행위와 병행되어 사회진반에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전 피뢰정권에서는 《법》이라는 칼을 휘둘러 《대통령》도 하루이침에 감옥귀신으로 만드는 검찰의 무제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으며 검찰을 통제하는 《교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것도 내뒀었다.

윤석열역적도의 이러한 검찰파쇼독재강화놀음은 《법치》의 간판위에 강행되는 무지막친한 란암행위와 병행되어 사회진반에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전 피뢰정권에서는 《법》이라는 칼을 휘둘러 《대통령》도 하루이침에 감옥귀신으로 만드는 검찰의 무제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으며 검찰을 통제하는 《교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것도 내뒀었다.

윤석열역적도의 이러한 검찰파쇼독재강화놀음은 《법치》의 간판위에 강행되는 무지막친한 란암행위와 병행되어 사회진반에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전 피뢰정권에서는 《법》이라는 칼을 휘둘러 《대통령》도 하루이침에 감옥귀신으로 만드는 검찰의 무제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으며 검찰을 통제하는 《교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것도 내뒀었다.

《탄핵으로 싸우자》, 《검찰독재 윤두광을 몰아내자! 탄핵의 봄을 열자!》

피뢰지역에서 제 68차 초불대행진 진행, 반윤석열투쟁 확대



지난 9일 서울에서는 윤석열역적도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제68차 초불대행진이 진행되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윤석열의 너넨넨인 김건희의 퇴물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상습적인것이었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추가조작법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윤석열이 반대세력제거를 위한 란암을 일삼으면서도 도를 넘어서고있는 제 집식자들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눈감고있다. 이

것이 바로 탄핵리유의 하나이다. 민중은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키고 김건희를 구속시킬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편파적인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역시 모두 탄핵대상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이어 《탄핵으로 싸우자》, 《검찰독재 윤두광을 몰아내자! 탄핵의 봄을 열자!》라는 프랑카드와 선전물들을 들고 《부정부패 국정통단 김건희를 투옥하라!》, 《국가조작

경력조작 범죄백화집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 퇴비호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범죄는폐용 정치란암 언론란암 중지하라!》, 《윤석열의 언론장악범죄 분쇄하자!》, 《로조법 방송법 거부한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피뢰대통령실을 향해 시위행진을 하였다. 행진도중 열린 집회에서는 윤석열퇴진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가해지는 란암을 끝장내야 한다, 투쟁의 시작과 마감은 윤석열을 끌어내

리는것이라는 웨침이 터져나왔다. 이에 앞서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은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생존권보장을 위한 대규모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이번 시위투쟁에는 《민영화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직부성공급제 지지, 일자리확충》 등을 요구하여 1만 2000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시위참가자들은 《국민피해, 재벌특혜, 공공기관민영

화, 구조조정 반대한다》, 《국제로동기구도 인정했다. 로정교섭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직부성공급제》, 《민영화》, 《구조조정》, 《로동란암》이 적힌 현수막들을 찢는 상징의식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윤석열역적도의 살인적인 로조란암책동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떠밀었다고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련대하여 윤석열퇴진을 위한 투쟁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의지를 표적하였다. 본시기자

자멸을 청하는 허세성객기

피뢰군부호전광들이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 육군참모총장 등 피뢰군부우두머리들이 최전방전선부대들을 돌아치며 《적》의 어떠한 《기술도발》도 용납하지 말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하라고 호전적광기를 부리었다.

한편 피뢰특공특수전사령부소속 《천마》부대는 미군특수부대와 경기도 포천에서 전진연합특수작전훈련을, 피뢰7사단은 미2보병사단 《한미연합사단》소속 《스트라이커》려단과 연합화확화전투훈련에 광분하였다.

피뢰군부호전광들의 이러한 군사적대결소동은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결코 북남군사분야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정세를 악화시켜놓고는 뒤가 켜져 부러대는 허세성객기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과 망심이 인정하는바와 같이 공화국의 정찰위성발사는 주변국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행사이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 피뢰역적패당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대 대처한 자위적조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역적패당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 야합하여 공화국의 주권적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걸고들며 북남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하는 망동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역적패당은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떠들며 군사적대결소동에 더욱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피뢰군부호전광들의 이러한 광태는 저들이 범한 돌이킬수 없는 실책이 가져온 파국적후과에 대한 근심고민과 회개에 따른 발악이고 발광으로서 내외의 더 큰 규탄배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패정권은 반공대결정권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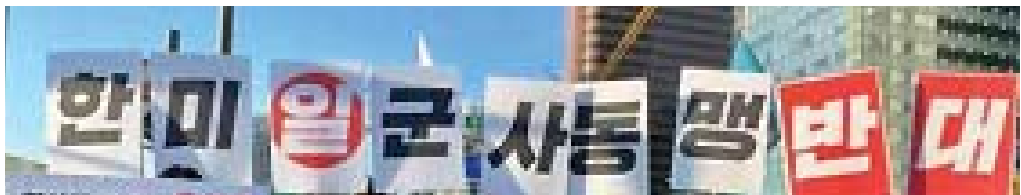
얼마전 피뢰통일부것들이 서울에서 그 무슨 《북인권련인그루빠》 및 디지털자유화》로 논회라하는것을 벌려놓고 《북인권》나발을 불어댔다.

반공화국대결에 미처도 더럽게 미친자들의 허스레리적 망동이 아닐수 없다.

지난 기간 피뢰통일부가 《통일부》라는 간판을 쓰고 반공화국대결과 모략에 광분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윤석열 역도의 집권후 피뢰통일부는 역도의 대결전쟁정책실현의 앞장에서 서서 세력을 아연케 하는 대결광기를 부리었다.

북남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한 역도와 피뢰군부패당의 망동은 적극 비호두둔해나섰는가 하면 《대북비라살로 금지관련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알권리》를 막는 위법이라고 제치면서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비라살포행위를 적극 비호두둔해나섰다.



이것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도발이며 국제법적규범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은 피뢰역적패당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피뢰군부호전광들이 초보적인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헤아려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피뢰역적패당이 집먹은 게 더 요란히 짓는다는 격의 허세성객기로 그 누구를 놀래우고 피뢰지역에서 날로 높아가는 안보불안을 농작하며 민심의 반 《정부》기운을 반공화국대결로 돌리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도리어 조선반도안보환경을 통제 불능의 극단상황으로 더욱 몰아가는 무모한 군사적망동이다.

피뢰호전광들은 조선반도평화의 파괴자, 대결미치광이인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피뢰역적패당이 집먹은 게 더 요란히 짓는다는 격의 허세성객기로 그 누구를 놀래우고 피뢰지역에서 날로 높아가는 안보불안을 농작하며 민심의 반 《정부》기운을 반공화국대결로 돌리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도리어 조선반도안보환경을 통제 불능의 극단상황으로 더욱 몰아가는 무모한 군사적망동이다.

피뢰호전광들은 조선반도평화의 파괴자, 대결미치광이인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피뢰통일부것들을 비롯한 역적패당은 공화국의 정체를 인민중시정체이다. 공화국을 약탈하게 혈투는 세력들이 진 자 인권유리자들이다. 조선을 비난하는 《인권》공연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패된 작품이며 너무도 서투르게 연주하고있는 《인권유리》장단들이고 《인권》에 대해 비린칭을 두들기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벌린것은 조금도 이상할것 없지 않다.

반공화국대결의식에 썩들대로 썩들어 초보적인 분별력도 없이, 제 앓을자리 실자라도 모르고 대결광태를 부리고있는것이 바로 피뢰통일부이다.

어리석은자들이 분별을 잃고 날뛰다가는 파멸로 가는 법이다.

지금 피뢰통일부것들이 놀아내는것이 바로 그 꼴이다.

무엇을 노린 《개각》 놀음인가

얼마전 윤석열 역도가 《대통령실》에 정책실을 새로 내오고 5명의 수석 비서관을 전부 갈아치운데 이어 행정부의 6개 부서 장관들을 교체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이에 대해 보수패당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이니, 《책임자내정》이니 광고하며 그 무슨 《정책변화》라도 보여주는듯이 떠들었다.

지금 피뢰지역의 각계층속에서는 역도가 피뢰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들과 행정부의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놀음을 벌린데 대해 《기만공작전》, 《반성과 쇄신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보여주기식 인물 동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피뢰지역에서 경제와 민생 악화,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으로 인한 안보위기심화, 친미친일외교정책의 파산, 지난 세계박람회개최권획득실패 등으로 윤석열역도에 대한 조소와 비난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부》투쟁이 세차게 벌여지고있는것은 세인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에 국도로 당황망조한 윤석열역도가 통치위기탈출의 《묘수》로 고안해낸것이 피뢰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들과 행정부의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놀음이다. 역도는 이번 인사놀음으로 《국정운영》에서 변화가 있는듯이 뉘세를 뒤엎어 대내외정책의 실패로 인한 내부의 반발을 농작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도발이며 국제법적규범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은 피뢰역적패당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피뢰군부호전광들이 초보적인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헤아려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피뢰역적패당이 세계박람회개최권획득경쟁에서 참패한것은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꼬리를 물고 산성되는 대외국 제적망신과 대외적고립, 극도의 통치위기의 연장이며 그 집중적표현이다.

윤석열역도가 이를 만회 하려고 경제부서 장관들과 대기업우두머리들을 끌고 부산을 돌아치며 《주민격려 간담회》이니, 《국제시장방문》이니 희희낙락 놀아대지만 무지무능으로 일관된 역도의 정치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며 그 경제부서 장관들과 대기업우두머리들을 끌고 부산을 돌아치며 《주민격려 간담회》이니, 《국제시장방문》이니 희희낙락 놀아대지만 무지무능으로 일관된 역도의 정치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며 그

피뢰역적패당이 세계박람회개최권획득경쟁에서 참패한것은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꼬리를 물고 산성되는 대외국 제적망신과 대외적고립, 극도의 통치위기의 연장이며 그 집중적표현이다.

윤석열역도가 이를 만회 하려고 경제부서 장관들과 대기업우두머리들을 끌고 부산을 돌아치며 《주민격려 간담회》이니, 《국제시장방문》이니 희희낙락 놀아대지만 무지무능으로 일관된 역도의 정치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며 그

피뢰역적패당이 세계박람회개최권획득경쟁에서 참패한것은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꼬리를 물고 산성되는 대외국 제적망신과 대외적고립, 극도의 통치위기의 연장이며 그 집중적표현이다.

윤석열역도가 이를 만회 하려고 경제부서 장관들과 대기업우두머리들을 끌고 부산을 돌아치며 《주민격려 간담회》이니, 《국제시장방문》이니 희희낙락 놀아대지만 무지무능으로 일관된 역도의 정치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며 그

피뢰역적패당이 세계박람회개최권획득경쟁에서 참패한것은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꼬리를 물고 산성되는 대외국 제적망신과 대외적고립, 극도의 통치위기의 연장이며 그 집중적표현이다.

윤석열역도가 이를 만회 하려고 경제부서 장관들과 대기업우두머리들을 끌고 부산을 돌아치며 《주민격려 간담회》이니, 《국제시장방문》이니 희희낙락 놀아대지만 무지무능으로 일관된 역도의 정치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며 그

《개각》 놀음은 세인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에 국도로 당황망조한 윤석열역도가 통치위기탈출의 《묘수》로 고안해낸것이 피뢰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들과 행정부의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놀음이다. 역도는 이번 인사놀음으로 《국정운영》에서 변화가 있는듯이 뉘세를 뒤엎어 대내외정책의 실패로 인한 내부의 반발을 농작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역도의 피뢰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과 행정부의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놀음을 벌린데 대해 《기만공작전》, 《반성과 쇄신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보여주기식 인물 동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도발이며 국제법적규범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은 피뢰역적패당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피뢰군부호전광들이 초보적인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헤아려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피뢰역적패당이 세계박람회개최권획득경쟁에서 참패한것은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꼬리를 물고 산성되는 대외국 제적망신과 대외적고립, 극도의 통치위기의 연장이며 그 집중적표현이다.

윤석열역도가 이를 만회 하려고 경제부서 장관들과 대기업우두머리들을 끌고 부산을 돌아치며 《주민격려 간담회》이니, 《국제시장방문》이니 희희낙락 놀아대지만 무지무능으로 일관된 역도의 정치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며 그

피뢰역적패당이 세계박람회개최권획득경쟁에서 참패한것은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꼬리를 물고 산성되는 대외국 제적망신과 대외적고립, 극도의 통치위기의 연장이며 그 집중적표현이다.

윤석열역도가 이를 만회 하려고 경제부서 장관들과 대기업우두머리들을 끌고 부산을 돌아치며 《주민격려 간담회》이니, 《국제시장방문》이니 희희낙락 놀아대지만 무지무능으로 일관된 역도의 정치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며 그

피뢰역적패당이 세계박람회개최권획득경쟁에서 참패한것은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꼬리를 물고 산성되는 대외국 제적망신과 대외적고립, 극도의 통치위기의 연장이며 그 집중적표현이다.

윤석열역도가 이를 만회 하려고 경제부서 장관들과 대기업우두머리들을 끌고 부산을 돌아치며 《주민격려 간담회》이니, 《국제시장방문》이니 희희낙락 놀아대지만 무지무능으로 일관된 역도의 정치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며 그

피뢰역적패당이 세계박람회개최권획득경쟁에서 참패한것은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꼬리를 물고 산성되는 대외국 제적망신과 대외적고립, 극도의 통치위기의 연장이며 그 집중적표현이다.

윤석열역도가 이를 만회 하려고 경제부서 장관들과 대기업우두머리들을 끌고 부산을 돌아치며 《주민격려 간담회》이니, 《국제시장방문》이니 희희낙락 놀아대지만 무지무능으로 일관된 역도의 정치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며 그

이것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도발이며 국제법적규범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은 피뢰역적패당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피뢰군부호전광들이 초보적인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헤아려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도발이며 국제법적규범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은 피뢰역적패당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피뢰군부호전광들이 초보적인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헤아려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도발이며 국제법적규범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은 피뢰역적패당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피뢰군부호전광들이 초보적인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헤아려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도발이며 국제법적규범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은 피뢰역적패당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피뢰군부호전광들이 초보적인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헤아려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도발이며 국제법적규범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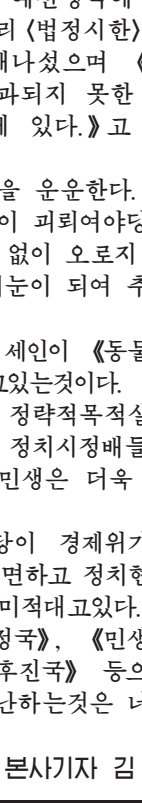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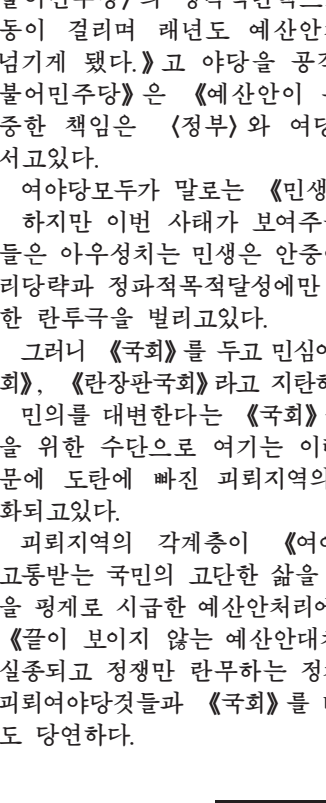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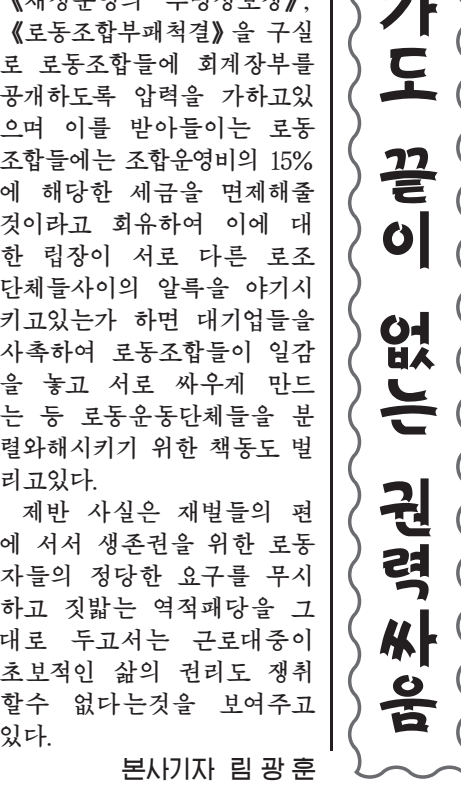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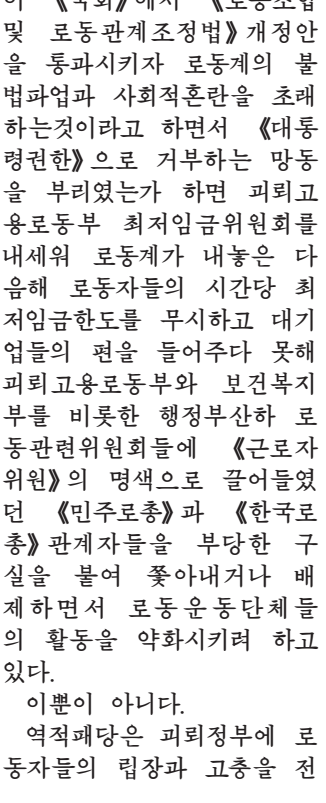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은 피뢰역적패당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피뢰군부호전광들이 초보적인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헤아려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도발이며 국제법적규범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은 피뢰역적패당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피뢰군부호전광들이 초보적인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헤아려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로동운동단체말살을 노린 비렬한 책동

최근 피뢰지역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초래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로동조합이 부패되어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고있다. 전제 로동자들의 11%만

최근 피뢰지역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초래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로동조합이 부패되어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고있다. 전제 로동자들의 11%만

최근 피뢰지역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초래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로동조합이 부패되어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고있다. 전제 로동자들의 11%만

최근 피뢰지역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초래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로동조합이 부패되어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고있다. 전제 로동자들의 11%만

최근 피뢰지역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초래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로동조합이 부패되어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고있다. 전제 로동자들의 11%만

최근 피뢰지역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초래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로동조합이 부패되어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고있다. 전제 로동자들의 11%만

최근 피뢰지역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초래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로동조합이 부패되어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고있다. 전제 로동자들의 11%만

최근 피뢰지역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초래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로동조합이 부패되어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고있다. 전제 로동자들의 11%만

최근 피뢰지역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초래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로동조합이 부패되어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고있다. 전제 로동자들의 11%만

최근 피뢰지역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초래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로동조합이 부패되어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고있다. 전제 로동자들의 11%만

최근 피뢰지역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초래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로동조합이 부패되어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고있다. 전제 로동자들의 11%만

최근 피뢰지역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초래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로동조합이 부패되어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고있다. 전제 로동자들의 11%만

최근 피뢰지역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초래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로동조합이 부패되어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고있다. 전제 로동자들의 11%만

최근 피뢰지역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를 초래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로동조합이 부패되어 로동자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가 이루어지고있다. 전제 로동자들의 11%만